

인천지부 회원 55명 대신산업에서 농성

— 인천시의 계획출하제 철폐에 항의 —



취재 : 김 동 성 (본지 편집과장)

본회 인천지부(지부장 : 김원호)는 지난 9월 4일 오전 8시부터 4시간동안 인천 대신산업 후문에서 회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의 돼지 계획출하제 철폐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날 농성은 인천시가 금년 3월 16일부터 시행해 오던 돼지 계획출하제를 출하 당사자인 생산자단체와 사전 상의없이 일방 중단시킨데서 발단이 되었다.

인천시는 그동안 도축장에서 출하돈의 장기 계류로 인해 사돈발생, 생체 감량 등이 발생하여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여 양돈협회, 중간상인, 농협 등이 참여하는 계획출하제를 시행해 왔으나, 지난 8월 26일

중간상인들이 계획출하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자 이날 계통출하 당사자인 본회 인천지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출하제를 철폐했다는 것.

이에대해 인천지부 회원들은 「인천시가 중간상인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핑계로 계획출하제를 백지화한 것은 국가 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계류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을 예방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출하제를 즉각 재개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지부의 이와같은 요구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상인들을 설득해 계획출하제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